

## 외로운 사람들

오늘도 상담 중에 여자 손님 한분이 한참을 울다가 가셨다. 내 마음은 물에 젖은 창호지처럼 맥없이 내려 앉는다. 나의 손님들은 6 년동안 쓰고 있는 나의 칼럼 때문인지 나를 오랜 친구처럼 살갑게 대해 주신다. 그리고 나에게 그들의 살아온 많은 이야기들을 하신다. 나도 이민 생활을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가난한 이민자들 대부분은 자식들 이야기를 하실 때 우신다. 남편 이야기를 할 때는 분노와 증오로 시작하여, 애증과 팔자 소관으로 체념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자식들, 심지어 30 대 미혼 자식 이야기를 할 때에는 목이 메어 우신다.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흔히들 팔자 고치기 위해 조국을 등지지는 않는다.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자식들만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성공시키기 위해 이민을 온다. 이민 와서 이날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깨어진 족박에 물뚫기처럼, 좀처럼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여 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들은 화병까지 안고 사니 자신의 몸도 영혼도 너털너털한 휴지 조각처럼 느껴진다. 지금처럼 불황이 장기화되고, 하는 일마다 안되면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어 가족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힌다. 자식은 다니던 대학을 중단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으며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다. 부모들은 싸우기 일쑤다. 엄마는 신경질로 악을 쓰고 아버지는 고함과 술기운으로 화를 낸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잠그고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한다. 이날까지 이민 와서 자식들에게 제대로 해 준게 없다는 엄마의 자조는 우울증으로 변한다. 우울증 약이나 수면제가 없으면 잠자리에 들 수가 없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낯선 도시의 타인들 처럼 느껴진다. 교회도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지 못한다고 거부한다. 나는 말없이 듣고 있지만 나도 마음 속으로 함께 울고 있다. 누가 이들을 외롭게 하는가.

어쩌면 <외로움>은 내가 평생 끌어왔고 살아야 하는 애물단지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삶들이 외로움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홀로 선 나무들>이다.

---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나의 외로움을 치유할 수 없다. 한국에서 살면 덜 외롭고 이민 와서 살면 더 외로운 것은 아닐 것이다. 내 주위의 이민자들을 둘러보면 내 눈에는 모두가 외롭게 보인다. 내 자신도, 내 아내도, 내 아이들도, 목사님도, 가까운 지인들도, 가진 자들의 어설픈 여유에도, 수다스러운 여자들의 웃음 소리에, 황혼의 나이에 새출발하는 신랑 신부의 얼굴에도, 모두의 얼굴에는 외로움이 스친다. 나는 혼자서 운전을 하거나, 사무실 내 방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면서 문득 외로움을 느낀다. 30년을 살 맞대고 산 아내도 무심한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자식도 이방세계의 우주인과 이야기 하는 것 같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 때 그 시절 그 선택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면..등등의 후회는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든다. 아내도 많은 나날을 내가 없는 곳에서, 혹은 화장실에서 수도물을 틀어놓고 외로워서 울었는지 모른다. 작년 가을쯤인가 잠이 오지 않아 책을 보다가 아들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아들 방문 앞에 다가갔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 아이는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목을 쥐어짜는 듯한 외로움의 울음이었다. 나는 아들의 방문을 열지 못했다. 그 아들을 위로하지 못했다. 그 아이의 울음은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에 대한 압박, 부모가 거는 기대, 명문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중압감, 남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등, 나는 끊임없이 내가 하지 못한 꿈들을 그 아이에게 강요한 것이다. 내가 그 아이를 울린 것이다. 이민 온 아들은 방 안에서, 이민 온 아버지는 방 밖에서 그렇게 서로가 모르게 울어야만 했다. 그날 이후로 그 아이에게 나의 꿈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대학가면 사 주겠다던 노트북과 핸드폰을 다음날 사 주었다. 특히나 이민자들은 외로운 사람들이다. 황혼의 남남이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은 <웨드라..죽어도 좋아>의 영화 제목처럼 죽고 못살정도의 사랑 때문은 아닐 것이다. 외로움이 죽기보다 더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미리 다짐을한다.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49 제>를 정성껏 지내주고, 돌아서는 즉시 나는 다른 여자와 재혼한다.” 라는 공표다.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외로움은 반복되는 <시장끼>와 같다고 했을까. 시장끼가 있어야 밥이 맛있듯이, 외로워야 더욱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닐까. 외로움은 목마름이다. 상대에 대한 욕구와 희망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상대를 의지하고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때 토라지고 빠지고 등을 돌리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다. 그렇다고 외로움을 내려 놓아서는 안된다. 외로움을 체념해서는 안된다. 외로움을 지워버리면 <거식증 환자>가 된다. 외로움은 없앨려고 할수록 더욱 더 커지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시장끼>정도로 옆구리에 끼고 살자. 배가 고프면 좋은 음식 재료를 찾아서 내가 직접 요리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게 먹으면 된다. 하지만 외로움이 깊은 사람은 사랑의 재료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 나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서 먹지를 않는다. 외로움은 새롭고 신선한 재료를 지속적으로 찾게 하는 동기부여다. 또한 외로움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사시사철 된장찌개만 먹는 사람과 같다. 아무리 내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지만 계속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멋이 없는 인생이다. 또 상대방을 질리게 하는 이기심이다. 외로움은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사랑은 외로움을 시장끼로 내가 만든 셀프 요리다.> 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까.. 오늘 저녁은 무슨 요리를 만들어 아내를 즐겁게 할까...